

주거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

이명신 · 이훈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주거형태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자료는 1994년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조사하기 위한 표본조사자료 중 주택과 관련된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근로자로서 총 2,380명이었다. 분석결과 자신의 집을 소유한 근로자와 큰 규모의 주택에 사는 사람일수록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주거형태가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주택만족도변인이 매개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한 결과 주거점유형태와 주택규모는 주택만족도변인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으나 주택형태는 주택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온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적 관계 집단행동 등을 연구하고,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정당성, 사회운동, 사회계층 등을, 의사들은 인간 유기체의 정상적이고 병리적인 구조와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사회과학의 자료들에서 얻어지지만 또한 좀더 객관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회지표연구(social indicators research)에서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OECD의 사회지표 개발프로그램으로 국가간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준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1982년에 공식적

인 OECD 사회지표 목록이 보고되었다.

사회지표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논쟁 중 하나는 사회적 조건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객관적인 수준만을 측정하느냐 아니면 주관적인 수준도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각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삶의 질의 주관적 측정이 중요시되었다(Campbell, 1976; Near, Smith, Rice, & Hunt, 1983).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비교해볼 때 객관적인 사회지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비가 들며, 둘째 정부와 지방단위의 통계 상호간에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지역간·부문간의 비교가 비교적 용이하다. 셋째, 대체로 시계열 자료를 구함으로써 사회적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주관적 자료

는 우선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자원이 국민들이 원하는 상태와 일치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둘째,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또한 경제적 성장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1996).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사회지표의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는 삶의 질 연구에서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질 연구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측정문제와 관련하여 사회학자인 Szalai(1980)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해서 「삶의 질」의 정의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의 결론에 따르면 「삶의 질」은 개인의 여러 가지 생활측면에서 느끼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나타내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구성요소를 열거하면, 건강상태, 자기 직업에서의 만족과 불만족, 경제상의 문제, 결혼생활의 성공과 실패, 자녀 및 친척간의 화목한 관계 또는 갈등관계, 또는 이웃간의 관계, 사업상의 문제, 일반적·정치적 상황 등을 포괄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지표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 관한 객관적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하여 새로운 사회지표는 이것 외에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 지각 및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바로 이 새로운 지표가 「삶의 질」의 지표가 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Szalai는 삶의 질이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어떤 사회나 개인의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지표 외에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혹은 만족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삶의 질 측정의 객관적 요인 뿐 아니라 주관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사회지표가 주관적인 삶의 평가 즉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객관적인 환경 중 주거형태

표 1. 연도별 주택수 및 주택보급률

연도	보통가구수 (천가구)	주택수 (천호)	보급률 (%)
1960	4,263	3,589	84.2
1970	5,576	4,360	78.2
1980	7,470	5,434	72.7
1990	10,168	7,357	72.4
1995	11,758	9,902	84.2

자료 : 주택건설종합계획(1996)

표 2. 일본과 미국의 연도별 주택보급률

연도	1963	1973	1983	1993
일본(%)	96.65	104.75	109.69	111.09
연도	1970	1980	1987	1989
미국(%)	108.2	109.5	114.7	113.8

자료 : 일본 주택산업서비스(1993)

와 관련된 요인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대부분이 저축의 일차적인 목적을 내집 마련에 두고있을만큼 자기의 집을 소유했느냐가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택실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주거형태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표 1은 연도별 주택수와 주택보급률로서 1960년 이후 1990년까지 주택보급률은 계속 떨어지다가 1995년의 주택보급률은 84.2%로 1990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약 12%가 증가되었다. 1995년도의 주택보급률 증가는 1990년대 초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 추진으로 주택건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미국이나 일본의 주택보급률과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주택수가 가구수보다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은 주거점유형태별 가구로서 '자가'는 49.9%, 전세는 28.8%, 월세는 19.2%, 무상 3.1%로 절반정도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표 3. 주거점유형태별 가구

자 가	전 세	보증부월세	월 세	무 상
49.9%	27.8%	8.2%	11.0%	3.1%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5)

표 4. 주택마련기간

	1987년	1992년
결혼이전	19.9	16.8
결혼이후	80.1	83.2
1년이내	10.4	11.4
2-3년	5.7	12.8
4-5년	16.8	14.9
6-9년	20.8	19.5
10-14년	19.8	21.8
15-19년	8.4	8.9
20년이상	8.1	10.6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5)

표 5. 원하는 주택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다세대	기 타
1987년	79.3	1.9	18.3	-	.5
1992년	63.3	1.8	34.2	0.5	.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5)

또한 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길다. 표 4는 통계청의 주택마련기간을 조사한 자료로서 결혼이전에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16.8%, 결혼이후 5년 이내에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39.1%이며, 10년 이상 걸렸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4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표 5와 표 6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와 원하는 주택규모의 추이를 나타낸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파트의 선호현상이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하는 주택규모도 1987년도에는 66-98㎡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원하는 주택규모는 24.9%인 33-65㎡이었으나 1992년에는 66-98㎡ 43.1%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규모이었으나 그 다음은 30.4%인 99-131㎡이었다. 이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주택보급률의 증가와 더불어 좀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나 규모 혹은 점유형태 등에 따라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자

이 연구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조사하기 위한 1994년 표본조사 자료중 주택과 관련된 자료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명신과 이훈구, 인쇄중). 조사대상자수는 대기업 1,762명(생산직 866명, 사무직 896명)과 중소기업 618명(생산직 326명, 사무직 292명) 모두 2,380명이었다. 이중 남자가 1,760명(72.9%), 여자는 653명(27.1%)이었다. 결혼 여부를 보면 미혼이 1,062명(44.1%), 기혼이 1,330명(55.3%), 기타 14명(0.6%)이었다. 나이는 30-39세가 40.7%(95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29세의 38.4(899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9.8세였다. 임금은 50-100만원이 43.9%로 제일 많았고(972명),

표 6. 원하는 주택규모

	33㎡	33-65㎡	66-98㎡	99-131㎡	132-164㎡	165㎡이상
1987년(%)	0.9	24.9	47.7	19.7	4.1	2.7
1992년(%)	0.6	14.9	43.1	30.4	7.7	3.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5)

100-150만원이 28.3%, 50만원 이하가 16.9%였다. 생산직의 평균임금은 86.97만원이었고, 사무직의 경우는 116.04만원이었다.

측정도구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주관적 삶의 질, subjective quality of life)를 측정하기 위하여 Campbell(1976)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을 재는 7점척도의 짝진 형용사 8문항(재미있는-지루한, 즐거운-비참한, 가치있는-쓸도없는, 우호적인-외로운, 가득찬-텅빈, 희망적인-비관적인, 보람있는-실망스러운, 행운이 따르는-운이 없는)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재는 단일문항의 두가지로 구성되어있다. 8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균을 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 중 단일문항인 '삶의 만족도'는 본래 7점 척도이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11점 척도(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로 측정하였다. Campbell은 두 요소를 합하여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as-a-whole)을 측정하였는데 이때 삶의 만족도 문항에 1.1의 가중치를 두어 합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감정과 가중치 1.1을 둔 '삶의 만족도'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되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는 11점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척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z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하였다.

결 과

주거형태별 주택에 대한 만족도의 비교

조사대상자 중 자신의 집을 소유한 근로자는 약 48%(1158명)이었고 약 35%(836명)의 근로자는 전세를, 월세는 약 5%(119명) 정도로 나타났다. 표 7은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주택만족도 분석결과인데 '자가'의 경우 자신의 주택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포함)하는 근로자는 35.8%(415명), '전세'는 16.1%(135명), '월세'는 10.0%(12명)으로 만족을 표시하는 근로자는 점차 감소하였다.

대한 이러한 만족도는 주거점유형태 뿐 아니라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규모(평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거주하는 집의 규모가 적을수록 주택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을 것이다. 20평미만에 사는 근로자 중 12.5%(109명)가 자신의 주택에 만족(매우 만족 포함)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주택의 규모가 증가함에

표 7. 주거점유형태별 주택에 대한 만족도 비율(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자가(1158)	2.6(30)	16.1(187)	45.3(525)	31.0(359)	4.8(56)	.1(1)
전세(836)	6.3(53)	30.7(257)	46.2(386)	15.3(128)	.8(7)	.6(5)
월세(119)	14.3(17)	34.5(41)	40.3(48)	9.2(11)	.8(1)	.8(1)

표 8. 주택규모별 주택만족도의 비율(사례수)

현 거주지의 평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20평 미만(870)	9.9(86)	34.0(296)	43.1(375)	11.7(102)	.8(7)	.5(4)
21-30평(901)	2.3(21)	19.9(179)	50.2(452)	24.2(218)	3.0(27)	.4(7)
31-40평(356)	2.5(9)	11.5(41)	44.7(159)	36.5(130)	4.5(16)	.3(1)
41-50평(96)	.0(0)	8.3(8)	39.6(38)	43.8(42)	8.3(8)	.0(0)
51평 이상(96)	5.2(5)	14.6(14)	32.3(31)	40.6(39)	7.3(7)	.0(0)

따라 각각 27.2%(245명), 41.0%(146명), 52.1%(50명)로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다(표 8). 또한 주택의 형태별로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즉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다세대나 연립 등의 주택에 사는 근로자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였다(표 9).

주거형태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위에서 주거점유형태, 규모, 주택형태에 따라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주택에 대한 만족도변인이 주거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 변인간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주거형태(주거점유형태, 규모, 주택형태), 주택만족, 주관적 삶의 질 지표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은 이러한 변인들간의 단순상관으로 이것은 한 변인의 다른 변인에 대한 총영향(total effect)을 나타내는데 총영향을 직접적 영향(direct effect)과 간접적 영향(indirect)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주거형태와 인구학적 변인이 주택

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하고 '주택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변인들(주거형태변인, 인구학적변인, 주택만족도변인)을 독립변인으로하고 주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하여 다시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림 1에는 각 변인들간의 단순상관계수(괄호안)와 경로계수(괄호밖)가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종속변인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만족도에 대한 주거점유형태, 주택규모, 결혼여부의 경로계수는 각각 $-.17(p < .001)$, $.28(p < .001)$, $.08(p < .01)$ 로 '자가'일수록, 주택규모가 클수록,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되었으나 주택형태($\beta = .03, p < n.s$), 교육($\beta = .02, p < n.s$), 성($\beta = -.03, p < n.s$), 연령($\beta = -.05, p < n.s$)은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주거점유, 주택형태, 규모, 교육, 결혼여부, 성, 연령, 주택만족의 효과는 각각 $\beta = -.01(p < n.s)$, $\beta = .02(p < n.s)$, $\beta =$

표 9. 주택형태별 주택만족도의 비율(사례수)

주택형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단독주택(728)	6.2(45)	25.4(185)	44.0(320)	21.3(155)	3.2(23)
아파트(1086)	4.0(43)	17.9(194)	47.4(515)	27.3(297)	3.4(37)
다세대, 연립, 빌라(529)	7.4(39)	31.8(168)	43.9(232)	15.7(83)	1.3(7)

표 10. 주관적 삶의 질, 주택만족, 주거형태, 인구학적 변인간의 단순상관

변인	1	2	3	4	5	6	7	8	9
1. 주관적 삶의 질	1.00								
2. 주택만족	.29	1.00							
3. 주거점유형태(1자가2전세3월세)	.11	-.25	1.00						
4. 주택형태(1단독2아파트3연립등)	.02	-.06	.15	1.00					
5. 주택규모	.05	.32	-.27	-.25	1.00				
6. 교육수준	.22	.11	-.13	.08	.17	1.00			
7. 결혼여부(1미혼2기혼)	.17	.05	-.16	.03	-.15	.08	1.00		
8. 성(1남성2여성)	-.20	-.06	.12	-.03	.07	-.37	-.52	1.00	
9. 나이	.18	.06	-.23	-.01	-.04	.15	.73	-.62	1.00

주 : .05이상인 $p < .01$ 수준에서 유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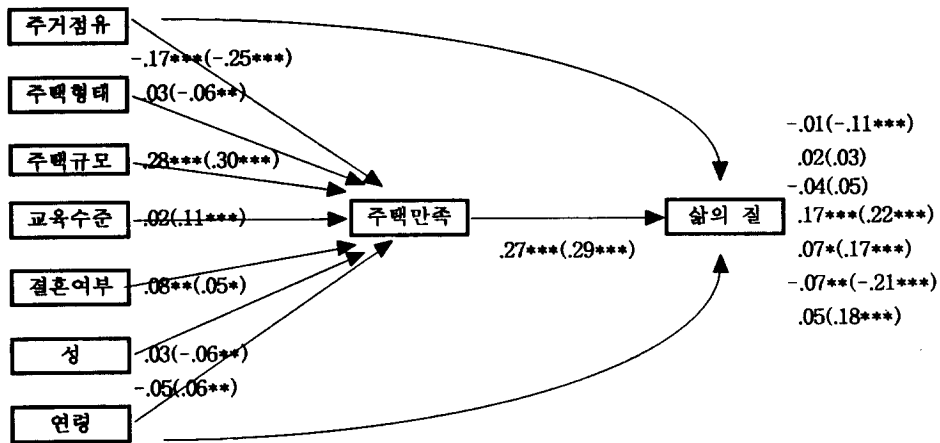


그림 1. 주거형태변인, 인구학적변인, 주택만족도, 주관적 삶의 질변인간의 경로분석

$-.04(p < n.s)$, $\beta = .17(p < .001)$, $\beta = .07(p < .01)$, $\beta = -.07(p < .01)$, $\beta = .05(p < n.s)$ 로 주택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의 효과가 가장 컸다. 이들 8개 변인이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량의 정도는 $R^2 = .14(F_{(8, 2031)} = 42.63, p < .001)$ 로 나타났다.

결과를 좀더 자세히 제시하면 먼저 주거점유형태는 주관적 삶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r = -.11, p < .001$)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며($\beta = -.01, p < n.s$), 주택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직접적 영향 = $-.17$, 간접적 영향 = $-.07$), 주택만족도변인 또한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직접적 영향 = $.27$, 간접적 영향 = $.02$). 이러한 결과는 주택만족도변인이 주거점유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의 변인을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즉 자기의 집을 소유할수록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게되어 주관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의 규모도 주거점유형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데, 경로분석결과 주택규모는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고($\beta = -.04, p < n.s$), 주택만족에 직접적인 영향($\beta = .28, p < .001$)을 보임으로써 주택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하여 주관

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의 형태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의 인구학적 변인들은 주택만족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 요인 중 ‘주택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집을 소유한 근로자와 큰 규모의 주택에 사는 사람일수록 주택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주택에 사느냐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주거점유형태, 규모, 주택형태가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매개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한 결과 주택만족도 변인이 주거점유형태, 주택규모와 주관적 삶의 질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형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즉 주거점유

형태와 주택규모변인은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변인을 매개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큰 규모의 집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주관적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인들이 '주택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주택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문제 중 주거점유형태와 주택규모, 주택형태만을 단순분석하였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좀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입'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주택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다음은 이 연구의 문제점과 더불어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관적 삶의 질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는 주관적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행복도, 만족도의 용어로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대부분 주관적 삶의 질은 자기-보고 형식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보고는 질문을 해석하고 단기·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끄집어 내고, 비교기준을 선택하고, 비교를 행하는 복잡한 인지적 판단과정이다.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이러한 판단과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몇 가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인지적 판단은 현재의 기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로써 비가 오는 날, 좋아하는 야구팀이 결승전에서 이긴 날의 주관적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분이 주관적 삶의 질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나 그 상관

정도는 크지 않다(Diener, 1994). 주관적 삶의 질을 판단하는데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이다. Carstensen 등(1983)은 이러한 요인이 자기-보고 형식의 주관적 삶의 질 측정의 타당성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 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응답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주관적 삶의 질 측정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 번째는 척도에 대해 응답자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척도 상에서 한 응답자가 '3'이라고 반응한 것이 다른 응답자의 반응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연구자는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정서적 경험의 빈도(시간)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Diener, 1994). 즉 경험의 빈도(시간)는 비율적인 속성이 있어서 즐거운 기분을 갖는 시간이 전체의 80%라고 대답한 피험자는 40%라고 대답한 피험자보다 두 배가 더 즐겁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행복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른 수 있다는 데서 기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주로 문화간의 차이로 행복을 표현하기보다 행복을 감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문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관적인 삶의 질 평가는 낮게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주로 주택과 관련된 문제만을 분석하였는데 그 외에도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로 볼 때 주택과 관련된 문제는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이명신 · 이훈구(인쇄중).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 지표 체계 개편 연

구.

-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arstensen, L. L., & Cone, J. D.(1983). Social desirability and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elderly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38, 7, 713-715.
-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Near, J. P., Smith, C. A., Rice, R. W., & Hunt, R. G.(1983). Job satisfaction and nonwork satisfaction as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126-144.
- Szalai, A.(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A. Szalai & F. M. Andrews(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7-21).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Residential Typ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Myong-Shin Lee and Hoon-Koo Lee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determined the effects of residential type on quality of life. The relevant data was selected from the worker's quality of life research sample(1994). 2,308 workers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analysis, home owners and owners of large houses were most satisfied with their residence. In order to assess the affects of residential type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influence on residential satisfaction variable was considered. Thus,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he ownership and the size of residence influenced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variable, which affects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residential type dose not influence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r the degree of residence satisfaction.